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확충!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

투쟁속보

잠정합의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임금 총액 4.1% 인상 ▲인력총원 12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18명
▲통상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80% 산입 ▲창립기념선물 2만원 인상

파업행 특급열차, 승리역으로! 잠정합의안 도출!

2023년 산별현장교섭 실무교섭이 25일 오후 5시 정릉에 위치한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됐다.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사의 의지를 확인하며 최종 실무합의를 도출해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우리지부는 구로병원 새롭교육관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실무합의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실무합의안이 통과되어야 잠정합의가 이뤄지는 만큼 간부대의원들은 자정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며 최종 찬반투표에 돌입해 가결됐다. 이로써 고대의료원지부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정릉 본부회의실에서 노사대표위원 및 교섭위원들이 모인 자리서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최종합의는 전 조합원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찬성표가 많을 시 최종합의에 다다르며, 반대표가 많을 시 교섭이 재시작된다. 전 조

합원 찬반투표는 최종 시일을 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2023 산별현장교섭 임금 총액 4.1% 인상

총액은 순수 임금과 수당에 따른 비율을 총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임금인상분 3.0%, 인수인계수당 1.1%를 합하여 최종 4.1%가 인상됐다. 다만 임금의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3.5%로 볼 수 있다.

통상임금 상여금 180% 포함 및 창립기념선물 인상 (2만 원)도 임금인상의 한 축을 차지한다.

우리지부는 임금인상 이외에도 위의 두 가지 요구안을 추가로 합의해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상여금 180%는 법정수당 즉, 연장근무 수당 및 심야수당 등 시급이 필요한 계산에 사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커질수록 시급도 인상되는 것이다. 또한 창립기념선물이 5만 원에서 2만 원이 인상된 7만 원으로 합의됐다.

2023년 산별현장교섭 잠정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지부교섭 노사 잠정합의안

I 임금

1. 정규직원의 임금은 총액기준 3.0%를 인상한다.
2. 3교대 부서의 간호사(수간호사 포함)에게는 월 8만 원을, 그 외 직원에게는 월 4만 원을 인수인계수당으로 지급한다.(매월 11일 소속부서 기준)
3.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4.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5.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3년 9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한다.

II 기타

1. 노조창립기념일은 근무일로 하되, 조합원 1인당 7만원 상당의 선물로 보상한다. (품목 및 단가는 노동조합에서 선택한다. 단,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으로 하여야 하며, 의료원에서 구매하여 지급한다.)
2.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영양팀 직원식은 2025년 1월 1일까지 외주를 도입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식을 담당하는 정규직은 환자식 담당으로 변경하고, 환자식 정원의 90%를 정규직으로 운영한다.

나. 원활한 직원식 외주 도입을 위해 노사는 TF를 운영한다.
3. 2024년 3월 1일부터 상여금 18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4. 정규직 인력 12명을 증원한다. (2024년 2월 29일)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8명으로 한다. (2024년 2월 29일)